

“삼성 차명재산 전면 재조사해야”

“반복되는 조작수준의 영터리 공시가격 개혁을”

유성엽 의원, 국세청 국감서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국세청에 재조사 요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사진)이 17일 국세청에 삼성 차명재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2008년 삼성 특검과 추후 추가로 밝



“아름다운 장미를 보세요”
17일 전주 로즈피아에서 열린 장미 평가회에 참석한 관리객이 재배 중인 장미를 평가하고 있다.

혀진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별도 재조사를 요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답하며 요청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20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재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 관련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조사 요청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바꾸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

러났다”며,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 뿐 아니라 판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성 기자

최고가 상위 50채 중 2018년도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고가주택 소유 재벌 등으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영터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 대한민국의 최상류층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영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17일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땅값+집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최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 2018년에는 18채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더 높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그동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영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 조사·분석결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 문제는 유독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거나 심하다. 2016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9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30억 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달랑 1억 원 차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견희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비슷하다. 토지(땅)값이 126억 원인데 주택(땅+집)가격이 112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 원이 된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은 터무니없이 낮다. 삼성그룹 이견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 원이다. 이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이다. F주택은 땅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해당 건물가격이 390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 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 원대이다. 정부 기준대로 산정하면,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은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영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양부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그리고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미래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를 즐기자

도서관위, 발전소 투어
장수 산서초 학생 대상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미래유권자와 위원회가 함께 즐기는 민주주의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를 기획하여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는 도내 격오지·특수학급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소외 계층 특성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선거놀이터와 민주주의 선거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놀이터는 선거(정치) 테마 인형 뽑기, 선거체험관 활동지 작성,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한 투표 체험, 선거홍보관 관람 등으로 선거에 재미를 입혀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7일에는 장수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민주주의발전소 투어에 참여한 나예준 학생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선거교실 및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선거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전주교·술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아름다운 장미를 보세요”
17일 전주 로즈피아에서 열린 장미 평가회에 참석한 관리객이 재배 중인 장미를 평가하고 있다.

전북 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

작품 시상식서 ‘군산의 하늘과 바다 즐기기’ 박상민씨 대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전라북도 여행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전북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대신 여행해주는 유람단) 사업의 작품 시상식을 17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산의 하늘과 바다를 즐기다’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크리에이터 박상민 씨가 선정됐으며, 상금으로 1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만원으로 즐기는 모래내시장의 신소현 씨, 우수상은 ‘출

산을 앞둔 예비맘과 함께하는 김제 이야기’의 몽타주 팀(강성현, 정미미)과 ‘베트남 아가씨와 함께하는 진안여행’의 기델 수 있는 여행 팀(김현우, 호래홍록)이 선정됐다. 그리고 특별상은 ‘다양한 체험이 있는 순창의 즐거움’의 임기환씨 가 선정됐다.

총상금은 200만 원으로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20만 원(2명), 특별상 10만 원이다.

접수된 작품들은 멘토링 교육 참여

도, 영상 조회 수, 새로운 전북관광콘텐츠 및 신규 테마여행코스 개발 여부, 여행코스로써 실현 가능성, 전라북도 지역 홍보 기여도 부분에서 전문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그리고 선정된 5개의 작품은 추후 SNS를 통하여 배포될 예정이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보유 채널 외에도 진안여행의 기델 수 있는 여행 팀(김현우, 호래홍록)이 선정됐다. 그리고 특별상은 ‘다양한 체험이 있는 순창의 즐거움’의 임기환씨 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크리에이터 박상민 씨는 “영상을 만들면서 잘 알지 못했던 전라북도의 모습과 다양한 지역의 특색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전라북도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